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0. 30.(금)

생애말 의료·돌봄 공론화 위한 두 번째 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 준비 최종 점검

- 제19차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개최(10.30) -
- 11.7.~11.8. 연명의료결정제도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주제로
시민패널 숙의토론 예정 -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가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2차 토론회는 연명의료 결정과 생애 말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300명의 시민패널이 직접 참여하여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0월 30일(금) 오후 2시, 서울 T타워에서 제19차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서울 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된 약 300명의 시민으로,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온라인 심층 토의,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생애 말 필요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민패널은 1박 2일 동안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시점 ▲연명의료 대리결정의 주체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을 주제로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10월 초부터 진행한 자료집 학습, 온라인 강의 등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숙의토론회 세부 진행방식,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패널이 원활하게 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함께 생애 말 의료·돌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숙의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	책임자	과 장	박광훈 (044-202-1880)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044-202-1883)

